

아이젠크 성격검사와 기질 및 성격검사를 통한 사상체질 특성 연구

성원영[†], 김우경[†], 송정모[‡], 김락형[†]

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신경정신과[†], 사상체질의학과[‡]

Study on Personality Traits of Sasang Constitution with TCI and EPQ

Won-Young Sung[†], Woo-Kyoung Kim[†], Jeong-Mo Song[‡], Lak-Hyung Kim[†]

Dept. of Neuropsychiatry, Woosuk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Woosuk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personality traits of Sasang constitutions by comparing the profiles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and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PQ).

Methods :

A total of 110 healthy people (20 to 40 years old), except for 2 Taeyangin (TY type), were analyzed; 45 Taeumin (TE type), 32 Soyangin (SY type), and 31 Soeumin (SE type). A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pecialist diagnosed the Sasang constitution after analyzing the result of a Two Step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TS-QSCD), the external appearance, temperament and symptoms. The dimensions of TCI and EPQ were compared among the different Sasang constitutions, using an analysis of variance, and correlations between TCI and EPQ were analyzed by a Pearson correlation method.

Results :

Among the four temperament dimensions of TCI, SY type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the SE type in Novelty Seeking. SE typ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TE and SY type in Harm Avoidance. SY typ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SE type in Reward Dependence. TE and SY typ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SE type in Persistenc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haracter dimensions of Self-directness, Cooperativeness and Self-Transcendence. Among the seven dimensions of EPQ, TE and SY typ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SE type in Extraversion. SE typ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SY type in Lie. SY typ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TE and SE type in Impulsiveness.

Conclusions :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re a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of personality traits among Sasang constitutions. This could help diagnose and understand each Sasang constitution.

Key Words: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EPQ),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Received : October 29, 2012; Revised : December 3, 2012; Accepted : December 17, 2012

Correspondence : Lak-Hyung Kim, Dept. of Neuropsychiatry, Woosuk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2-ga, Junghwasan-dong, Wansan-gu, Joenju, Joenbuk, South Korea.
TEL : +82-63-220-8617, E-mail : kimlak@hanmail.net

*This work was supported by Woosuk University(2012)

I. 서론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에서 사상인의 네 가지 기본 성정인 애노희락이 고유한 상승 혹은 하강 운동을 통해 인체 장부의 기능과 구조를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상체질의학에 있어서의 생리, 병리, 진단, 치료의 전 분야를 관통하는 주요개념이다¹⁾.

그동안 다양한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사상체질인의 심리와 성격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는데,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²⁾,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³⁾, Beck우울척도(BDI), 상태-특성 불안척도(STAI)⁴⁾, NEO-Personality Inventory (NEO-PI)⁵⁾, 기질 및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⁶⁾ 등을 이용한 사상체질별 차이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시간과 상황에 걸쳐 안정적 성격특성, 즉 개인이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일관된 양식을 가리키는 성격 특성 또는 특질은 사상인에서 천품적으로 타고난 성정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상체질의학의 이론과 유사한 점이 있다^{7,9)}. 특히, 인성의 표현형을 바탕으로 구분된 외향성 차원과 신경증 차원을 유전적, 생물학적 기초를 지닌 인성 특질로 이해하는 Eysenck로부터 시작하여 Gray, Cloninger로 연결되어 발전된 기질과 관련된 생물학적 이론은⁸⁾ 사상체질의학에서 타고난 성정의 차이에 의한 장부대소의 차이, 심리, 생리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론체계와 상당한 유사성을 생각하게 한다.

지금까지 성격의 특질적 관점의 이론에 근거한 사상체질인에 대한 성격 특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상체질에 대한 아이젠크 성격검사(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PQ)¹⁰⁾를 이용한 연구에서는¹¹⁾ 소양인에 비해 소음인의 신경증적 경향성과 중독성이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가 있었다. 또한 인성(Personality)을 기질(Temperament)과 성격(Character)으로 구분하여 유전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을 구분하고자 한 기질 및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¹²⁾ 연구에서 Lee 등은¹³⁾ 자

극추구에서 소양인이 태음인과 소음인에 비해 높다고 하였으며, Park 등은¹⁴⁾ 소양인에서 소음인에 비해 자극추구가 높고, 위험회피가 낮다고 하였다. Choi 등은⁶⁾ 자극 추구에서 소양인과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해 높고, 위험회피는 소음인이 가장 높고, 태음인, 소양인 순서로 차이가 있으며, 사회적 민감성에서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인내력에서 소양인,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해 높다고 하였다. 또한 Choi 등⁶⁾은 성격척도인 자율성에서 소양인이 가장 높고, 태음인, 소음인 순서이며, 연대감에서는 소양인이 태음인보다 높았다고 보고하는 등 연구들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Park 등¹⁴⁾, Choi 등⁶⁾의 연구를 제외한 사상체질인 특성에 대한 심리검사를 이용한 연구들에서 많은 수가 사상체질 진단에서 설문지 검사만으로 이루어진 점, 연구 대상이 대학생 집단과 같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등이 결과해석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이다. 연구대상의 차이와 체질진단방법의 차이 등 연구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사상체질인의 성격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미 연구가 이루어진 심리검사도구들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확대된 연구대상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체질 진단을 통한 연구가 축적될 때, 사상체질인의 성격 특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심리 이론 중 특질이론의 대표적인 검사도구인 EPQ와 TCI 검사를 통해 사상체질인의 성격 특성을 살펴보고 종전의 연구와 비교해 보고자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체질진단과 EPQ, TCI를 실시, 분석하여,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2011년 6~7월에 만 20~40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스스로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문진을 통해 특

정 질환 및 신체적 심리적 불편 증상을 가지지 않은 자를 모집하였다. 제외기준은 설문 작성을 할 수 없는 자, 체질진단이 불가능한 자, 기타 시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였다.

참가하는 대상자들의 체질 분포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각 체질별 30명 이상 모집을 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10명이 연구에 참여하여 110명의 자료를 얻었으며, 이중 태양인으로 진단된 2명을 제외한 108명의 자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졌다.

2. 연구방법

1) 사상체질의 판별

사상체질 판별은 임상경력 20년 이상의 사상체질 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상체질 의학과 전문의는 미리 작성한 사상체질진단설문지(Two Step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TS-QSCD)^{15,16)} 결과를 참고하고, 안면, 체형, 심리, 행동, 생리, 병리 증후에 대한 내용의 면담을 통해 체질을 판별하였다. TS-QSCD는 다른 체질진단 설문 기법과 다른 형식의 '사상체질 진단을 위한 2단계 설문지(TS-QSCD)'로, 1단계에서는 陽人과 陰人을 구분하고 2단계에서는 다시 陽人은 태양인 소양인, 陰人은 태음인 소음인으로 구분하여 검사하는 방식이다. 사상체질 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체질 진단과 비교한 TS-QSCD의 진단 정확률은 두 번의 연구에서 각각 71.87%, 74.9%로 보고되었다^{15,16)}.

2)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K-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K-EPQ)¹⁰⁾

K-EPQ는 Eysenck Personality Scale(EPS, Eysenck & Eysenck, 1991)을 이현수가 우리나라 표집을 대상으로 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¹⁰⁾ 제 1부(EPQ I)는

원 저자의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Revised (EPQ-R, Eysenck, et al.)를 개정한 것으로 1985년 이현수 등에 의해 한국판 표준화가 보급되었다. EPQ I은 EPQ에 의해 측정되는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 P), 외향성-내향성(Extraversion-Introversion, E),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 N), 허위성(Lie: L)의 네 개의 성격 특성 외에 중독성(Addiction, A)과 범죄성(Criminality, C) 등 모두 여섯 개의 성격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로 6개의 척도와 8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부는 EPQ I의 단축형으로 네 가지 성격특징을 보다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각 척도마다 12문항씩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3부는 충동성 검사(Impulsiveness Questionnaire, IVE-7, Eysenck & Eysenck, Eysenck, et al. :이하 EPQ III)로 충동성(Impulsiveness: Imp), 모험성(Venturesomeness, Ven), 그리고 감정 이입(Empathy, Emp)의 성격 특성을 측정하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현수의 저서에서 EPQ I과 EPQ III의 Cronbach α 값은 각각 0.67~0.84와 0.65~0.87로 상당한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보였다. 그리고 검사-재검사 상관값은 EPQ I과 EPQ III에서 각각 0.75~0.91과 0.65~0.84를 보였다. 위의 결과로 보아 EPQ I과 EPQ III 모두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EPQ I & EPQ III를 사용하였다.

3) 기질 및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¹²⁾

C. R. Cloninger(1987)가 개발한 TCI는 심리생물학적 인생모델에 기초하여 개발된 검사로서,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을 이해하고 그 기질을 바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한 성격을 파악하여 개인의 고유한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리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병배 등(2007)이 표준화 한 기질 및 성격검사¹¹⁾-성인용(TCI-RS)을 사용하였다. 총 1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도구는 4가지 기질 차원(자극추구(Novelty Seeking: NS), 위험 회피(Harm Avoidance: HA),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RD), 인내성(Persistence: P))과 3가지 성격 차원(자율성(Self-Directness: SD), 연대감(Cooperativeness: C), 자기 초월성(Self-Transcendence: ST))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척도는 3~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TCI-RS는 대학생 특유의 특성이 검사 결과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검사 결과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 대학생 집단과 일반 성인 집단을 구분하여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일반 성인의 경우 7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0.77~0.88, 대학생의 경우 0.83~0.90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달 간격으로 실시한 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0.79~0.90의 범위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다.

3. 통계분석

피험자의 나이, 신장, 체중, BMI를 평균 및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체질 간 차이에 대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정으로는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피험자의 성별 및 직업의 체질 간 차이에 대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TCI와 EPQ의 각 척도 및 하위척도의 원점수 또는 T점수를 평균 및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체질 간 차이에 대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정

으로는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또한 EPQ 척도와 TCI 척도 결과간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사용하여 살펴 보았다.

SPSS 17.0(SPSS Inc, IL, USA)를 이용하였으며 P-value < 0.05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 과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연구 참여자 110명 중 태양인으로 진단된 2명을 제외한 108명의 체질별 분포는 태음인 45명(41.67%), 소양인 32명(29.63%), 소음인 31명(28.70%)으로 나타났다. 나이와 신장에서 군간 차이가 없었으나 체중과 BMI에서 태음인이 소양인,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아이젠크 성격검사(K-EPQ) 결과

척도 E에서 태음인 및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척도 I에서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척도 Imp에서는 소양인이 태음인 및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 | Taeumin | Soyangin | Soeumin | Total | P-value* |
|-------------------------|--------------------------|--------------------------|--------------------------|-------------|----------|
| N(%) | 45(41.67%) | 32(29.63%) | 31(28.70%) | 108(100%) | |
| Gender(M/F) | 23 / 22 | 15 / 17 | 16 / 15 | 54 / 54 | |
| Age(years) | 24.47±4.11 ^a | 26.66±5.44 ^b | 26.16±4.35 ^c | 25.60±4.67 | 0.144 |
| Height(cm) | 169.22±7.06 ^a | 168.84±5.55 ^b | 168.77±6.92 ^c | 168.98±6.55 | 0.961 |
| Weight(kg) | 66.51±10.73 ^a | 57.59±6.26 ^b | 57.42±8.20 ^b | 61.26±9.87 | 0.997 |
| BMI(kg/m ²) | 23.11±2.48 ^a | 20.14±1.18 ^b | 20.07±1.86 ^b | 21.36±2.47 | 0.990 |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 : by one-way ANOVA, a, b means not sharing common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at the .05 level on Scheffe test

Table 2. K-EPQ Results of Each Sasang Constitution

| | Taeummin | Soyangin | Soeumin | Total | P-value* |
|-----|---------------------------|--------------------------|--------------------------|-------------|----------|
| P | 47.55±12.19 | 51.28±9.974 | 45.49±7.41 | 48.06±10.51 | 0.082 |
| E | 52.10±11.09 ^a | 55.66±8.62 ^a | 41.53±8.88 ^b | 50.12±11.24 | 0.000 |
| N | 47.36±11.09 | 48.32±11.30 | 48.52±9.82 | 47.98±10.72 | 0.878 |
| L | 53.33±10.52 ^{ab} | 48.32±10.40 ^a | 55.78±11.08 ^b | 52.55±11.08 | 0.022 |
| A | 46.63±8.77 | 48.04±10.54 | 48.57±9.12 | 47.60±9.377 | 0.645 |
| C | 46.88±10.20 | 47.63±10.39 | 48.34±9.91 | 47.52±10.10 | 0.825 |
| Imp | 49.12±7.34 ^a | 54.63±10.11 ^b | 45.56±8.37 ^a | 49.73±9.15 | 0.000 |
| Ven | 47.23±11.98 | 47.92±9.40 | 43.39±10.87 | 46.33±11.01 | 0.206 |
| Emp | 52.02±8.60 | 50.16±9.66 | 54.29±8.82 | 52.12±9.04 | 0.194 |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 : by one-way ANOVA, a, b means not sharing common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at .05 level on Scheffe test, P : Psychoticism, E : Extraversion, N : Neuroticism, L : Lie, A : Addiction, C : Criminality, Imp : Impulsiveness, Ven : Venturesomeness, Emp : Empathy

3. 기질 및 성격검사(TCI-RS) 결과

기질척도 차원에서 NS는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HA는 소음인이 태음인 및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RD는 소양

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P는 태음인과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Fig. 1).

성격척도 차원의 SD, C 및 ST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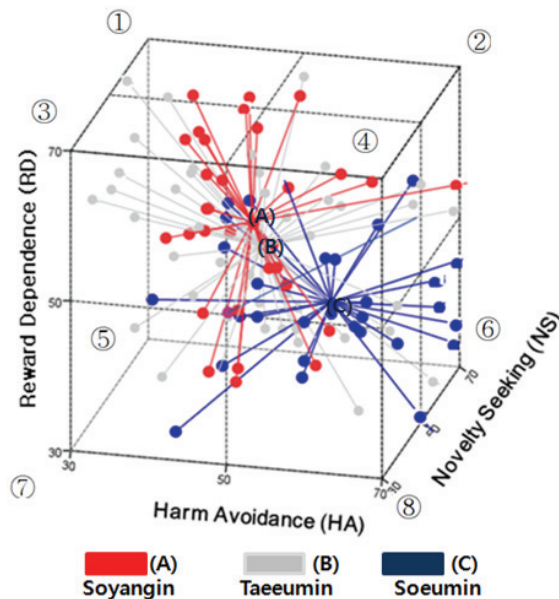


Fig. 1. Temperament Cube and Sasang Constitutional Types. (A) is the central point of Soyangin, (B) Taeummin and (C) Soeumin.

Table 3. Temperament and Character Dimension of TCI Results in Each Sasang Constitution

| | Taeumin | Soyangin | Soeumin | Total | P-value* |
|-----------------|--------------------------|--------------------------|--------------------------|-------------|----------|
| NS [*] | 52.82±9.89 ^{ab} | 57.78±10.21 ^a | 48.84±9.34 ^b | 53.15±10.33 | 0.002 |
| HA [*] | 48.84±12.52 ^a | 46.38±7.71 ^a | 58.77±13.00 ^b | 50.96±12.45 | 0.000 |
| RD [*] | 50.49±9.56 ^{ab} | 51.69±8.93 ^a | 45.48±8.56 ^b | 49.41±9.37 | 0.018 |
| P [*] | 50.73±10.26 ^a | 50.06±9.28 ^a | 42.29±9.27 ^b | 48.11±10.31 | 0.001 |
| SD | 50.93±12.31 | 48.94±10.05 | 46.65±11.87 | 49.11±11.58 | 0.285 |
| C | 50.51±11.80 | 45.38±10.35 | 47.65±10.05 | 48.17±11.02 | 0.125 |
| ST | 51.76±11.19 | 50.09±10.16 | 49.87±10.42 | 50.72±10.61 | 0.695 |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of T-score, * : by one-way ANOVA, a, b means not sharing common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at .05 level on Scheffe test, NS : Novelty Seeking, HA : Harm Avoidance, RD : Reward Dependence, P : Persistence, SD : Self-Directness, C : Cooperativeness, ST : Self-Transcendence

4. 기질차원 하위 척도 검사 결과

기질차원 하위 척도에서 NS1(탐색적 흥분/관습적 안정성), NS2(충동성/심사숙고)에서 태음인,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HA2(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HA3(낮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 HA4(쉽게 지침/활기 넘침)에서 소음인이 태음인 및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RD2(정서적 개방성)에서 태음인 및 소양인은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RD3(친밀감/

Table 4. Subscale of Temperament dimensions in Each Sasang Constitution

| | Taeumin | Soyangin | Soeumin | Total | P-value* |
|------------------|--------------------------|-------------------------|-------------------------|------------|----------|
| NS1 [*] | 11.44±3.78 ^a | 11.84±3.06 ^a | 9.03±4.11 ^b | 10.87±3.84 | 0.005 |
| NS2 [*] | 8.60±2.80 ^a | 9.91±2.82 ^a | 6.42±2.67 ^b | 8.36±3.06 | 0.000 |
| NS3 | 8.22±3.84 | 9.34±4.33 | 7.65±3.76 | 8.39±3.99 | 0.225 |
| NS4 | 8.44±3.60 | 8.78±2.81 | 7.55±3.06 | 8.29±3.24 | 0.295 |
| HA1 | 9.31±4.65 | 8.34±3.57 | 10.58±4.49 | 9.39±4.36 | 0.124 |
| HA2 [*] | 10.27±3.59 ^{ab} | 9.66±2.88 ^a | 12.00±2.86 ^b | 10.58±3.30 | 0.012 |
| HA3 [*] | 9.31±4.61 ^a | 7.88±3.31 ^a | 12.48±3.92 ^b | 9.80±4.42 | 0.000 |
| HA4 [*] | 7.49±4.55 ^a | 7.44±2.83 ^a | 11.23±4.18 ^b | 8.55±4.32 | 0.000 |
| RD1 | 12.82±3.02 | 11.63±2.52 | 11.81±2.69 | 12.18±2.82 | 0.126 |
| RD2 [*] | 10.62±3.45 ^a | 11.97±2.86 ^a | 7.84±1.99 ^b | 10.22±3.32 | 0.000 |
| RD3 [*] | 11.58±3.41 ^{ab} | 12.47±2.59 ^a | 9.90±3.11 ^b | 11.36±3.23 | 0.005 |
| RD4 | 10.53±3.03 | 9.72±2.23 | 10.61±2.79 | 10.31±2.75 | 0.343 |
| P1 [*] | 10.56±3.49 ^{ab} | 11.94±3.03 ^a | 9.19±3.22 ^b | 10.57±3.42 | 0.005 |
| P2 | 10.89±3.50 | 10.78±2.65 | 9.45±3.42 | 10.44±3.28 | 0.135 |
| P3 [*] | 12.47±3.59 ^a | 12.00±3.18 ^a | 9.39±2.87 ^b | 11.44±3.51 | 0.000 |
| P4 [*] | 11.33±3.53 ^a | 9.72±3.17 ^{ab} | 8.35±3.18 ^b | 10.00±3.52 | 0.001 |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of raw score, * : by one-way ANOVA, a, b means not sharing common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at .05 level on Scheffe test, NS : Novelty Seeking, HA : Harm Avoidance, RD : Reward Dependence, P : Persistence

거리두기)에서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1(근면)에서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P3(성취에 대한 야망)에서 태음인 및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P4(완벽주의)에서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4).

5. TCI의 기질 척도와 EPQ I & III 척도의 상관관계

NS는 P, E, Imp, Ven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L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HA는 N, A, C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E, Ven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D는 E, Imp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는 E, Ven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N, A, C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6. TCI의 성격 척도와 EPQ I & III 척도의 상관관계

SD는 E, Ven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P, N, A, C, Imp, Emp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C는 L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N, A, C, Imp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ST는 P, Emp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L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IV. 고찰

성격은 '개인의 환경에 대한 적응을 결정짓는, 특징적이며 일관적인 행동 패턴과 사고 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생리적인 구조에 기반을 둔 정서 반응을 의미하는 기질, 타인과 구분되는 고유한 심리 생리적 특징인 개성, 가치 개념이 포함된 성격, 고유한 행동양식인 성격 특성 등의 의미를 포괄한다^{8,17)}.

현대 성격 심리학의 기원은 Hippocrates(460~377 B.C.)의 4체액설과 Galen(130~200)의 4기질설에서 찾을 수 있는데,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의 네 가지 체액이 인체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되는 동시에 성격 형성의 기반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현대에 들어 기본 인성의 생물학적 근간을 추구 하였던 Eysenck의 성격 유형론까지 맥을 이어왔는데, 그는 요인분석을 통해 두 개의 심리적 단면 측과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네 개의 새로운 유형을 설정하였다. Eysenck 이론의 핵심에 있는 내-외향 단면과 신경증 단면은 현대 심리학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설정되는 네 가지 유형인 외향-정서적 불안형, 내향-정서적 안정형, 내향-정서적 불안정형의 성격 기술 특징들은 각각

Table 5. Correlations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with EPQ I and EPQ III

| | EPQ I | | | | | | EPQ III | | |
|----|-------|---------------|---------------|--------|--------------|--------------|---------|--------|-------|
| | P | E | N | L | A | C | Imp | Ven | Emp |
| NS | .30** | .45** | 0.15 | -.36** | 0.17 | 0.13 | .57** | .41** | 0.14 |
| HA | -0.06 | -.71** | .67** | 0.06 | .61** | .67** | -0.08 | -.54** | 0.17 |
| RD | 0.09 | .47** | -0.04 | 0.01 | -0.11 | -0.04 | .30** | .20* | 0.15 |
| P | -0.04 | .64** | -.44** | 0.01 | -.38** | -.42** | -0.08 | .51** | -0.03 |
| SD | -0.08 | .50** | -.72** | 0.09 | -.64** | -.71** | -.19* | .32** | -0.17 |
| C | -0.07 | .27** | -.45** | .34** | -.42** | -.41** | -.26** | .27** | 0.08 |
| ST | 0.07 | 0.01 | 0.05 | -0.08 | 0.07 | 0.05 | -0.05 | 0.1 | 0.09 |

**p<0.001, *p<0.05, Correlations above ≥0.60 are indicated in bold, P : Psychoticism, E : Extraversion, N : Neuroticism, L : Lie, A : Addiction, C : Criminality, Imp : Impulsiveness, Ven : Venturesomeness, Emp : Empathy, NS : Novelty Seeking, HA : Harm Avoidance, RD : Reward Dependence, P : Persistence, SD : Self-Directness, C : Cooperativeness, ST : Self-Transcendence

의 Galen의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과 유사하다^{8,12,17}.

그러나, Eysenck가 기술한 인성 차원 구조는 기저의 생물학적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Gray(1982)는 서로 독립적인 세 가지 신경체계 사이의 상대적 밸런스로 설명되는 포괄적 인성체계, 즉 행동 활성화 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 행동 억제 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 싸움 주도 체계(Fight-Flight System, FFS)를 발달시켰으며, 이러한 Gray의 이론과 Sjöbring(1973)의 행동 유지 체계(Behavioral Maintenance System, BMS) 이론을 기본 토대로 하여 Cloninger는 요인분석에 기초한 심리생물학적 인성 모델을 제시하였다. Cloninger의 TCI는 정상인과 심리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신뢰도가 매우 높고 속성이 안정적임이 밝혀졌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구조와 안정성이 반복 검증되었다¹². TCI와 MMPI의 관계를 밝힌 연구¹⁸, TCI와 우울 불안을 연구한 연구¹⁹, TCI와 EPQ 연구²⁰ 등 기존의 심리검사와 연계하여 비교분석한 연구뿐만 아니라, Park 등¹⁴, Lee 등¹³, Choi⁶의 연구처럼 사상체질과의 연구에도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S-QSCD와 연구 대상의 체형, 안면 형태, 음성 특징을 기초로 한 전문의의 면접에 의해 최종적으로 체질판정을 받은 만 20-40세의 건강한 남녀 110명을 대상으로, TCI-RS와 K-EPQ를 실시하였다.

K-EPQ의 분석 결과, 척도 E에서 소양인, 태음인은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서, 보다 사교적이며 항상 기분이 좋고 모험심이 강하며 활동적이고 생기가 넘치는 한편,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¹⁰.

척도 L에서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는데, 소음인이 솔직한 자신을 표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남의 잘못을 훈계하면서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태음인, 소음인에 비해 척도 Imp 점수가 높은 소양인은 말하고 행동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에 착수하기 전에 생각하는 일이 없으며 일의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⁰.

Lee 등¹¹은 대학생들에서 QSCC-II를 이용하여 체질을 판정하고 EPQ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소양인에 비해 소음인에서 Neuroticism과 Addiction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체질진단방법, 연구대상이 다른 것과 관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CI의 분석 결과, 기질분석 중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에 대한 탐색과 처벌을 회피하는 성향을 말하며 행동을 활성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NS는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처벌이나 위협이 예상될 때 이를 회피하는 성향을 말하며 행동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 있는 HA는 소음인이 태음인 및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강화 없이도 친밀감 혹은 애착이라는 사회적 보상을 위해 행동을 유지하는 성향, 즉 사회적 애착에 대한 의존성을 말하며 행동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 있는 RD는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간헐적인 강화나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성취라는 보상을 위해 일정시간 동안 행동을 지속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P는 태음인과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체질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소양인과 소음인 사이에 NS, HA, RD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소음인과 태음인 사이에 HA, P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소양인과 태음인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의 척도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양인과 소음인의 성격 특성-기질의 차이가 두드러지며, 태음인은 일부 소음인과 차이를 보이고 소양인과는 구분이 어려움을 볼 수 있다. 기질차원의 자극 추구, 위협회피, 사회적 민감성의 조합 모형 육면체에 연구대상을 위치시켜보면 Fig 1과 같다. 소양인은 1번 꼭지점에, 소음인은 8번 꼭지점에 가깝게 위

치하여 소양인은 소음인보다 열정적인(연극성), 소음인은 소양인보다 꼼꼼한(강박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태음인은 중심값이 소양인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Fig 1). 이러한 결과는 임상에서 체질진단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격 특성에서 두드러지지 않는 태음인의 특성에 대해서는 생리적, 병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임상과 연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TCI의 성격 척도인 SD, C, ST에서는 체질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Lee 등¹³⁾, Park 등¹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Choi의 결과⁶⁾와 다른 결과이다. 성격차원들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한 자기개념의 차이를 반영하고, 기질은 환경자극에 대한 자동적 정서반응이라 할 때, 같은 기질유형을 지닌 사람도 성격발달의 차이로 다른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상체질인의 차이는 기질차원에서의 차이로 표현될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사상 체질과 TCI의 하위 척도와의 차이를 살펴보고 사상의학에서의 체질 특성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았다. NS1, NS2에서 태음인,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양인, 태음인이 감각추구적인 성향이 강하며 낯선 상황이나 낯선 장소를 탐색하는 데 흥미를 느끼고 순간적인 본능이나 직관적 육감에 따라 행동하므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나타날 경우 반복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반면, 소음인은 새롭거나 신기한 자극에 대해 별 흥미를 느끼지 않고, 일에 있어 좀처럼 지루해 하지 않고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¹²⁾.

HA에서 HA2는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HA3와 HA4는 소음인이 태음인 및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별로 걱정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긴장하고 불안해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고 조용히 지내고자 하는 경향

이 있으며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회피하려 하며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소양인은 위험한 상황이나 일을 더 즐기고 변화에 더 쉽게 적응하며, 태음인과 함께 사교적이고 낯선 사람이나 상황에 거의 위축되지 않고 주도적이며 오랫동안 활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다고 할 수 있다¹²⁾.

RD에서 RD2는 태음인,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RD3는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소양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있으려 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며, 태음인과 함께 사회적 접촉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 열려 있는 편이다. 반면, 소음인은 다른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친해지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며 친밀한 관계보다는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¹²⁾.

P에서 P1은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P3는 태음인,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P4는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태음인은 자신이 맡은 일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어 하고 한 가지 사물이나 활동에 장시간 관심을 쏟고 지칠 때까지 노력하는 한편 융통성이 부족한 성향을 띠며, 소양인은 어떤 일도 더 빨리 시작하고 더 빨리 완성해내며 야심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소음인은 쉬운 일에서도 시작이 더디고 마지못해 하는 경향을 보이며 현재의 성취에 만족하는 실용주의자의 경향을 띤다고 할 수 있다¹²⁾.

또한, K-EPQ 각 척도와 TCI 각 척도와의 상관분석에서 NS가 P, E, Imp, Ven과 양의 상관관계를, L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HA는 N, A, C와 양의 상관관계를, E, Ven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는 E, Ven과 양의 상관관계를, N, A, C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이젠크의 외향성내향성, 신경증성 척과 Cloninger의 NS, HA의 축의 관계를 생각해볼 때, 외향성이

높은 것은 NS가 높고 HA가 낮은 것과 관련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8,12)}, 본 연구에서는 NS와 E와의 관계만이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성격 차원과 EPQ와의 상관성을 보면, SD는 E, Ven과 양의 상관관계, P, N, A, C, Imp, Emp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C는 L과 양의 상관관계를, N, A, C, Imp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ST는 P, Emp와 양의 상관관계를, L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기존의 Jung²⁰⁾의 연구에서는 NS가 P, E, Imp, Ven과 양의 상관관계, L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HA가 N, A, C와 양의 상관관계, E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적은 개체수로 인해 결과 분석에서 제외된 태양인으로 체질 판정된 2명의 EPQ I의 결과는 T점수로 각각 P 47.45, 51.55, E 68.37, 55.88, N 33.00, 63.21, L 62.74, 55.09, A 36.77, 51.59, C 33.53, 61.77이었으며, EPQ III의 결과는 각각 Imp 44.85, 75.37, Ven 54.96, 60.77, Emp 54.51, 55.53이었다. 또한 2명의 TCI 결과는 T점수로 각각 NS 51, 76, HA 45, 63, RD 42, 47, P 70, 46, SD 65, 37, C 44, 45, ST 48, 55였다. 향후 데이터 축적을 통해 태양인의 성격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전 연령층이 아닌, 만 20-40세의 비교적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연령대에 따라 EPQ 및 TCI의 일부 결과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Choi⁶⁾의 연구에서는 사상체질 간에 기질 뿐 아니라 성격차원에서도 차이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으나, Park 등¹⁴⁾, Lee 등¹³⁾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TCI 연구, Sung 등²¹⁾의 중학생에서의 JTCI를 이용한 사상체질 특성 연구에서는 기질 척도와 기질 차원 하위척도에서만 체질 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도 기질차원에서만 체질 간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기질은 다분히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일생동안 안정적 속성을 보이는 한편, 성격은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측면으로 기질과 사상체질과의 관련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생물학적 기반에 근거한 성격특성에 대한 검사인 TCI와 EPQ는 여러 가지 점에서 체질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향후 EPQ와 TCI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생물학적 기반과 사상체질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사상체질의 심리, 생리, 병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V. 결론

만 20-40세의 건강한 성인남녀 110명을 대상으로 TS-QSCD 설문 결과를 기초로 사상체질 전문의의 직접면담을 통해 체질을 진단하고 EPQ와 TCI를 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EPQ의 결과, E척도에서 태음인 및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L척도에서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Imp척도에서는 소양인이 태음인 및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2. TCI의 기질척도 차원에서 NS는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HA는 소음인이 태음인 및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RD는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P는 태음인과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격척도 차원의 SD, C 및 ST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사상체질인의 성격 특성에 대해 TCI 및 EPQ의 결과를 종합하여볼 때 소양인과 소음인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EPQ와 TCI를 통해 밝혀진 사상체질인의 성격 특성은 향후 체질 임상과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Song IB, Lee MJ. A study on Sadan and Chiljoeng in Sasang Constitutional M
2. Choi S, Chi S, Jung B, Ahn K, Koh B, Sung H.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sang constitutions and Myers-Briggs Type Indicator. *Korean J Orient Med* 2000;6:47-7
3. Kim JW, Kim JH, Hwang UW. Clinical study o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alcoholic patients-with MMPI & Sasang constitution. *J Orient Neuropsychiatry* 1992;3:65-85
4. Seo W, Kim LH, Kwon BH, Song JM.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asang constitution by using BDI and STAI. *J Sasang Const Med* 2000;12:136-3
5. Park HI, Lee KI. A study of personality traits in Sasang constitution according to comparative analysis of QSCCII & NEO-PI-R. *J Const Med* 2000;12:104-2
6. Choi DS, Kim LH, Sung WY, Han SJ, Shin DY, Song JM. Characteristics of Sasang Constitution by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11;23(3): 351-60
7. Text Compilation Committee. *Neuropsychiatry in Korean medicine*. Seoul: Jipmoondang, 1998.
8. Cloninger SC. *Theories of Personality*. Prentice Hall, 2007.
9. Chae H, Park SH, Lee SJ, Koh KC. Sasang Typology from a Personality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2004;25(2):151-64.
10. Lee HS. *Korean version of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Seoul: Hakjisa, 2010.
11. Lee SK, Jeong SE, Sung KK. Study of personality traits in constitutional types.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and Pathology*. 2004;18(6): 1892-5.
12. Min BB, Oh HS, Lee JY. Korean version of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family manual. Seoul: Maumsarang, 2007.
13. Lee JH, Chae H, Park SJ, Kwon YK. Analysis on Character and Temperament of Sasang Types with Repeated QSCC II Tested Subjects.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and Pathology*. 2007;21(5) :1319-31.
14. Park SH, Kim MG, Lee SJ, Kim JY, Chae H. Temperament and character profiles of Sasang typology in an adult clinical sample.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09; 17:1-7.
15. Kim YW, Shin DY, Kim JH, Choi DS, Lim MK, Song JM. A Development of the Two Step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TS-QSCD).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6; 18(1):75-90.
16. Shin DY, Song JM.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TS-QSCD(Two Step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2009;21(1): 99-126.
17. Pervin LA, Cervone D, John OP. *Personality: Theory & Research* 9th ed. Seoul: Chung-Ang Juk-sung Publishers, 2006. P. 314-5.
18. Yang GH. The Relation between TCI & MMPI. *Journal of Student Guidance and Counselling*. 2008;18(21):15-29.
19. Lee SH, Hwang ST. Construct Validity of the TCI-RS(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Revised-Short Version): Comparing Temperament and Character with Depression and Anxiety in Korean Undergraduat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9;28(2): 533-48.
20. Jung JK.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and Comparison with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Ulsan university, 2004.
21. Sung WY, Kim JY, Kim LH. Temperament and Character Profiles of Sasang Constitu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1;22(3):55-64.

